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미시의회

「다양한 문화의 접촉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13. 5. 27 ~ 6. 1(4박6일)
- 방 문 국 : 캄보디아 / 태국
- 연 수 단 : 13명(의원10명, 공무원3명)

2013년 6월



구 미 시 의 회

2013년도 공무국외연수 개요

1. 방 문 국 : 캄보디아, 태국

2. 연수목적

- 다양한 문화의 접촉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우리지역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박물관 관리, 관광개발, 문화재 관리 운영과 시설 견학을 통하여 도시계획 발전방향 및 해법 제시

3. 연수기간 : 2013. 5. 27(월) ~ 6. 1(토), 4박 6일

4. 보고서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김정곤 의원 외 9명

5. 여행자 명단

연번	소 속 위 원 회	직책	성명	비고
1	구미시의회	의 장	임 춘 구	단 장
2	"	기획행정 위 원 장	권 기 만	1조
3	"	기획행정 부위원장	김 성 현	
4	"	의회운영 부위원장	박 주 연	
5	"	의 원	허 복	
6	"	산업건설 위 원 장	김 재 상	2조
7	"	산업건설 부위원장	이 명 희	
8	"	의회운영 위 원 장	김 정 곤	
9	"	의 원	박 교 상	
10	"	의 원	김 정 미	

목 차

I. 연수개요

1. 연수의 목적	2
2. 연수세부내용	2
3. 연수일정	2

II. 연수국 현황

1. 캄보디아	3
2. 태국	5

III. 주요방문지 견학 내용

9

IV. 방문후기 및 정책제언

1. 방문후기	20
2. 정책제언	23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다양한 문화의 접촉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우리지역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박물관 관리, 관광개발, 문화재 관리 운영과 시설 견학을 통하여 도시계획 발전방향 및 해법 제시

2. 연수세부내용 : 2013. 5. 27(월) ~ 6. 1(토), 4박 6일

3. 연수일정

일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5.27 (월) 제1일	구미 인천 씨엠립	버스 KE 687	12:30 19:00 22:25	구미출발 인천공항 출발 씨엠립 도착 후 호텔 투숙
5.28 (화) 제2일	씨엠립	전용차량	전일	▶씨엠립 주 청사 방문 ▶앙코르툼 시찰 석식/토론회 개최(견학시설에 대한 토론)
5.29 (수) 제3일	씨엠립 파타야	전용차량	전일	▶앙코르국립박물관 견학 -박물관 활용 및 운영관리 사항 시찰 파타야 이동 ▶파타야 도로·교통 현황 시찰 -파타야 시가지 도로교통 관리실태 견학 석식/토론회 개최(공공시설에 대한 토론)
5.30 (목) 제4일	파타야	전용차량	전일	▶파타야 사회복지시설 탐방 - 고아원 시설운영 및 복지정책 비교견학 ▶농녹빌리지 답사 -조경조성 관리와 보존형태 기반시설 시찰 석식/토론회 개최(복지시설에 대한 토론)
5.31 (금) 제5일	파타야 방콕	전용차량 KE 662	전일 01:45	▶차오프라야강 수상가옥, 시장 견학 ▶문화유적 답사 : 왕궁, 에메랄드사원, 새벽사원 -문화재 보존 방식, 건축방식 견학 방콕출발
6. 1 (토) 제6일	부산 구미	버스	08:55 12:30	김해공항 도착 구미 도착

1. 캄보디아

총면적 181,305km²으로 북서쪽으로 태국, 라오스, 동쪽과 남쪽으로 베트남, 서쪽으로, 캄보디아 만으로 둘러싸여 인도차이나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

서쪽해안을 따라 태국만이 만나는 곳에는 충적토(흙과 모래가 떠내려 와 쌓인 평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변은 산과 동쪽은 메콩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평야의 중심에는 메콩이 만들어낸 수자원이 풍부한 톤레삽(Tonle Sap)호수가 있으며, 정식국명은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국왕과 수상이 존재하는 입헌군주국이며 국가원수는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고, 정부 수반은 캄보디아 국민당 소속인 훈센이다.

의회는 양원제로 국회와 상원으로 구성, 국회는 임기가 5년이며 123석이고 상원은 임기가 6년으로 61석이다.

동남아시아 최강의 문화를 꽃피웠던 크메르 왕조의 역사가 깃든 아픈 근대역사를 지닌 채, "앙코르 제국"의 부활을 위해 꿈틀거리고 있다.

◆ 현 황 ◆

- 수 도 : 프놈펜
- 인 구 : 1,460만명(2012년 기준)
- 기 후 : 고온다습 (연평균:27℃)
- 면 적 : 181,035km² (남한의 약 1.8배, 한반도의 4/5)
- 주요도시 : 프놈펜(Phnompenh), 크라티(Kracheh), 밧담방(Battambang)
- 언 어 : 크메르(공식어), 프랑스, 영어
- 민 족 : 크메르족(90%), 베트남계(5%), 중국계(1%), 기타(4%)
- 문맹률 : 69% (1996년 현재)
- 종 교 : 소승불교
- 통 화 : 리엘(CR :Cambodian riel)이고, 100, 200, 500 리엘

◆ 경 제 ◆

- 국민의 75~80% 농민으로 농업이 국가산업의 근간이며, 취약한 인프라와 원조의존형의 경제구조로 인해 제조업이나 농업 부문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이 성장 추세에 있다.

◆ 교 통 ◆

- 캄보디아의 철도는 전체길이가 약 603km로 프놈펜에서 바탐방을 지나 국경을 넘어 타이에 이르는 노선과 프놈펜~캄퐁참 노선이 있으나 모두 단선(單線)이다.
도로는 전체길이 3만 5769km로 이 가운데 4,165km가 포장되어 있으며, 베트남호찌민(사이공)~프놈펜~바탐방 간, 프놈펜~씨엠립 간 등의 국도가 있다. 수로(水路)는 모두 3,700km로 90%가 메콩·톤레사프수로이며, 중요 무역항으로는 하항인 프놈펜과 유일한 해항인 캄퐁참 외에 캄포트·크롱카오콩이 있다.

◆ 사 회 ◆

-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 내전으로 인한 대량학살 등으로 인해 캄보디아에는 장년층을 찾아보기 힘들다. 2012년 현재 인구는 1,460만 명이며, 평균수명은 61.29세로 남자는 59.27세, 여자는 63.4세이고 평균연령이 21.3세로 상당히 젊은 국가에 속한다.
교육은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학제는 6-3-3제(대학원 3-5년)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총 6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이 만연하고 낙후한 학교시설과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 기 후 ◆

- 캄보디아의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이며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 3월~5월에는 북서풍이 불고 고온 건조하며 최고 기온이

35℃~40℃이다. 6월~8월에는 남서풍이 불고 고온 다습하다.

9월~11월은 우기로 다습하고, 12월~2월은 건조하며 최저 기온이 20℃이고 최고 기온이 30℃이다.

우기에는 메콩 강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곳은 홍수 위험이 있다. 또한 수도인 프놈펜은 배수 시설이 열악하고 지표면이 낮아서 우기에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1시간~2시간만 내려도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교통정체가 심하다.

2. 태 국

아시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태국은 불교의 나라로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외국인들에게는 썬암(Siam)으로 잘 알려져 왔다. 면적은 약 51만 평방km이고 6,0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거의 비슷한 크기이다. 또한 서쪽과 북쪽으로는 미얀마, 북동쪽으로는 라오스, 동쪽으로는 캄보디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교차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태국의 정식 명칭은 타이 왕국이다. 태국의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현재 국가원수는 차끄리(Chakri) 왕조의 제9대 왕으로서 1946년에 즉위한 푸미폰 국왕이다. 태국은 국왕 탄신일인 12월 5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두었다.

◆ 현 황 ◆

- 수 도 : 방콕(Bangkok) - 1,006만 명
- 인 구 : 6,700만명(2012년 기준)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행정단위 : 76개 창왓(changwat)과 6개의 지방
- 교 육 : 초등학교(6년 의무교육), 중등교육(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교육(4년)
- 기 후 :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연평균:28℃)

- 면 적 : 51만 4,000km²(한반도의 약 2.3배)
- 언 어 : 타이(Thai)어
- 민 족 : 타이(Thai)족 85%, 화교 12%, 말레이(Malay) 족 2%, 기타 1%
- 종 교 : 불교 94.6%, 이슬람(Isla)교 4.6%, 기독교 0.7%, 기타 0.1%
- 통 화 : 바트(Baht), 1미국달러=30.49바트(2011년 기준)
- 국내총생산(GDP) : 약 3,048억 달러(2011년 기준)

◆ 경 제 ◆

- 태국은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온 이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태국은 방대한 국토,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 건실한 농업 생산기반,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및 중국 등 역내 국가와의 교역 확대,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개발 추진 등으로 경제가 급속히 신장하여 아시아의 새로운 신흥공업국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출지향 경제의 중진개도국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 정 치 ◆

- 푸미폰국왕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와찌랄롱꼰 왕세자는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푸미폰 국왕의 유고 시 승계 문제는 태국 정치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정부 및 여당은 왕실모독죄 법 조항 변경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학계 등을 중심으로 왕실모독죄 조항 폐지를 둘러싼 입장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 회 ◆

- 태국은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직접 정치에 나서지는 않으나 국민들이 국왕을 존경하고 있다. 특히 현재 푸미폰 국왕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존경을 바탕으로 국가 통합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태국은 주변국의 침략 속에서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켜낸 나라라는 자부심이 강하며, 국가와 자국민에 대한 강한 사랑과 애착이 특징이다.
- 태국은 불교의 자비심 및 관용이 일상생활에 반영되어 있다.
- 두 손을 이마에 올려 사례하는 태국식 인사(와이)는 불교의식이 생활화된 것이다. 태국은 왕실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대단하여 외국인이라도 왕실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은 엄금하며, 극장 등에서 국왕 찬가가 연주될 때는 기립하여 예의를 표하는 것이 관행이다. 태국은 왼손 사용을 부정하게 여기며, 어린이라도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금물이다. 태국은 불교의 영향으로 20세기 초반까지 성씨 제도가 없었으며, 191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도 사람을 부를 때 성보다는 이름을 부른다. 예를 들어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의 경우 잉락(Yingluck) 총리로 호칭한다.

◆ 한국과의 관계 ◆

- 태국은 한국전 당시 전투병력을 파견(1950년 11월)한 전통적 우방으로서 특히 한반도 평화, 북핵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속해서 지지하였다. 한편 태국은 1975년 5월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되었다.
- 2011년 기준으로 태국에 거주 및 체류하는 한국인 재외동포 수는 약 1만 7,500명이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방콕(Bangkok) 및 인근 지역에 1만 5,000명이 있고, 푸껫(Phuket)에 1,500명이 있으며, 치앙마이(Chiang Mai)에 1,000명이 있다.
- 태국에 있는 재외동포는 대부분이 여행업, 요식업 등 관광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한국계 투자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본국과도 사업상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중 일부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다.
-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민 자녀들을

위한 한국 교민학교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30일에 방콕(Bangkok)한국국제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태국 내 최초 전일제 한인학교로 2002년 3월 1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식인가를 취득하였다. 방콕한국국제학교는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학생 130명, 교사 24명이 있다.

이 밖에도 방콕, 푸껫(Phuket), 치앙마이(Chiang Mai) 지역의 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 한국과 태국의 무역량은 198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인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태국의 무역량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2010년 1월에 한국-태국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되면서 양국 간 무역량이 급증하였다.

2011년 양국 간 총 무역 규모는 139억 달러(수출 84억 6,000만 달러, 수입 54억 1,000만 달러)로, 2010년 대비 30.5% 증가하였다. 태국은 한국의 제20위 무역대상국이다. 주요 수출·수입 품목을 한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출품은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순이고, 수입품은 농림수산물, 전자전기제품, 화학제품 순이다.

◆ 교 통 ◆

- 타이는 메남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운이 발달되어 농산물의 집하(集荷)의 대부분 수운(水運)에 의존하고 있다.

수로는 총 4,000km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군사상의 필요로 도로 건설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철도는 국영이며, 총연장은 4,071km(2005년)이고 도로는 총 57,403km이다. 수도 방콕의 돈무앙 국제공항은 세계항공로의 간선으로서 30여 개의 국제선이 발착하고, 2006년 기준 공항은 108개가 있다.

가스 파이프라인은 총 3,760km(2006년)이다.

Ⅲ

주요 방문지 견학 내용

■ 씨엠립주 청사 방문



씨엠립주 청사 방문(2013. 5. 28.)

씨엠립은 크메르 제국의 근거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곳이다. 씨암(Siam)은 태국을 일컫는 말인데, 씨엠립의 자세한 의미는 "태국에 의하여 점령된 곳"이라는 뜻으로 알려졌다. 크메르 왕국 멸망 후에는 타이령(領)이 되었으나, 프랑스령시대에 타이로부터 할양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600km에 이르는 지역 내에 모두 9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100여개의 사원이 발견되었다. 특히 앙코르 유적이 프랑스에 의해 복원되면서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도시에도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 도시는 앙코르왓에서 남쪽으로 약 6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숙

박시설이나 식당, 편의시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 최근에도 외국 자본의 유입, 특히 한국인의 투자로 인해 숙박과 각종 위락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씨엠립주의 총 가구 수는 4만 6천 가구에 인구는 약 200만정도이며, 13개의 군과 108개의 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시엠펙시의 인구는 16만명 정도이며 한국인은 한국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1,000여명 정도가 거주중이라고 한다. 또한 요즘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체계적인 한국에 대한 홍보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고 하였다.

■ 앙코르 유적지 탐방



앙코르 왓 사원(2013. 5. 28.)



앙코르 톰(2013. 5. 28.)



타푸놈사원(2013. 5. 28.)

▶ 앙코르 왓

대부분의 사원이 동쪽을 향해 있는 반면 이 사원은 서쪽을 향해 있어 발견 초기 '죽음의 사원'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천문대 역할을 했음이 밝혀졌고, 우주의 변화를 표현한 사원임을 알게 되었다.

1860년 프랑스의 동물학자 앙리무오에 의해 발견되어 세계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는 이 사원은 세계적 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여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선정배경에는 인근에 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돌을 어떻게 구하고 운반해서 건축 했는지와, 37년간 25만 명이 64만평을 건축하였는데 천정, 기둥, 벽, 바닥의 수많은 조각을 어떻게 완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현재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한다.

1km 의 면적에 사암으로 건설된 앙코르왓은 그 주변을 길이 1.3km-1.5km의 해자로 둘러쳐져 있다. 또한 중앙 입구에서부터 사원 내까지 355m의 긴 보도와 중앙 탑까지 세 겹으로 둘러싸인 회랑은 해자와 더불어 앙코르왓이 사원이라기보다는 동양의 왕성을 연상케 한다. 세계적인 석조 건물인 앙코르왓은 그 웅장함이나 건축물 자체에서 풍기는 신비함 못지않게 세부적인 조각의 아름다움이 전체를 엮어 나아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힌두 전설인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우유의 바다 젓기, 마나수라, 신들과 악마의 전쟁, 그리고 건립자이던 수리아바르만 2세의 출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각 회랑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부조물들의 정교함과 현란함으로 그 당시 예술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 앙코르 톰

'앙코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의 '나가라'에서 변형된 것이고, '톰'은 '크다'라는 의미로 '큰 도시'를 의미한다. 앙코르 톰은 기존의 사원과 왕궁 등의 주위에 자야바르만 7세가 성벽을 세움으로서 왕성을 요새화 하는 역할을 하였다. 총 면적 144km²이며, 외각으로 폭 100m 해자로 둘러싸여 있다. 이는 적의 공격이나 동물들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

였으며, 약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앙코르 톱 안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앙코르 톱은 사원이 아니고 해자로 둘러싸인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난 문과 이에 연결된 다리를 건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앙코르 입구의 탑에는 각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4개의 거인 얼굴상이 있고, 그 밑으로는 각 방향으로 인드라 신의 좌상이 머리가 3개인 3m 높이의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안에는 바론사원, 레퍼 왕 테라스, 바프온 사원, 피맨아카스 등의 유적들이 남아 있다.

▶ 타프놈사원

타프놈 사원은 자야바르만 7세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건립한 사원이다. 다른 앙코르 사원과는 달리 이곳은 수도원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사원으로 보수를 하지 않아 자연 상태 그대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곧게 솟은 이엉 나무와, 사원의 벽과 기둥을 휘감고 뒤편에 뿌리가 사원을 들어 올리는 스펡 나무가 울창한 이곳은 마치 지옥의 사원을 연상케 한다. 사원은 사암으로 된 단층의 건축물로 되어있고, 부분적으로 황토가 섞인 5개의 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울창한 수목과 이끼가 덮인 벽, 뿌리가 파헤치며 들어 올려진 사원의 모습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문명의 흔적을 탐험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몇몇 곳의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관광객들은 주의해야한다.

또한 캄보디아는 자본과 기술부족으로 훼손된 유적지 복원이 어렵다고 한다. 스스로 복원이 불가능해서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고 복원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섬세한 복원은 무리인가 보다, 시멘트로 말라 형체를 유지하여 놓은 부분도 있었다.

■ 앙코르 박물관 방문



앙코르 박물관 방문(2013. 5. 29.)

앙코르 국립 박물관은 과일을 먹고 사는 박쥐들이 많아서 박쥐공원으로 불리는 박쥐공원을 옆에 끼고 앙코르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해 둔 곳이다. 박물관 내부는 마치 호텔처럼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며, 건축 양식을 보면 앙코르왓의 건축양식을 많이 따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앙코르 유적지에서 가져와 이곳으로 옮겨둔 것이다. 앙코르 유적지에 있는 조각들과 유물들 중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훼손의 우려가 있는 유물들이 이곳에 있다고 보면 된다. 유적지에 있는 조각들 중 일부는 모조품으로 원래의 진품은 이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참고로 개관시간은 오전 08시 30분에 문을 열어 오후 6시에 문을 닫으며, 한국어 통역기를 대여 해준다. 그리고 박물관 안에는 큰 가방을 들고 갈 수 없으며, 동영상과 사진 촬영도 금지되어 있었으며, 모자 또한 벗고 들어가야 한다.

톤레삽 호수 견학



톤레삽 호수 (2013. 5. 29.)



톤레삽 호수 (2013. 5. 29.)

동양 최대의 호수로 불리는 톤레삽 호수는 캄보디아 인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캄보디아 면적의 15%를 차지하면서 그 다양한 식물 및 어류를 통해 캄보디아 인에게 60%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한다. 톤레삽 호수는 건기인 10월에서 3월까지의 상류에서 호수의 물이 프놈펜 쪽으로 흘러 메콩강과 만나 메콩강 삼각주로 흐르지만, 우기인 4월에서 9월까지의 메콩강 물이 역류하여 이 호수로 흘러든다. 그 우기때 물고기들은 호수로 흘러 들어와 물속에 잠긴 나뭇가지에 알을 낳는다고 하고, 호수의 수표면은 3배까지 넓어지며, 호수의 면적이 25,000km³ 까지 이른다고 한다. 수상촌은 주로 베트남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 이곳으로 피난을 와서 정착했다고 한다.

파타야 가로등



파타야 가로등 (2013. 5. 29.)



톤레삽 호수 (2013. 5. 29.)

캄보디아에서 파타야로 가는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시내 광경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왔다. 시내의 가로등들이 중앙 분리대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다. 요즘 같은 전기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으며, 가로등이 중앙에 있으므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가로등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에 한번 도입해 볼 만 한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 레뎀토리스트 방문



레뎀토리스트 방문(2013. 5. 30.)

레뎀토리스트 재단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재단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직업학교, 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 시설인 장애인 직업도움센터에서는 장애인의 구직지원을 위하여 1999년 12월에 개소를 하여 현재까지 4,180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회사인사관리담당자의 초청설명회, 적합한 직업군 탐색을 위한 직업기술측정과 수준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도움센터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가치는 교육 참여자의 도덕성교육으로 직장에서 문제가 도덕적 문제일 경우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동양최대의 자연 테마파크 농녹빌리지 방문



농녹빌리지 방문(2013. 5. 30.)

파타야 동쪽, 쭈쿰빗(Sukhumvit) 고속도로를 따라 약 20분 정도를 가면 파타야와 사타힙中间的 쯔티엔 해변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열대 정원 농녹 빌리지(Nong Nooch Tropical Garden)를 만나게 된다.

이 빌리지는 1980년도에 정식 개장하여 곧 한국, 일본, 대만 등 관광객들에게 주요한 관광 코스가 되었다. 이곳에는 다양한 오락과 휴식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유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적절하다. 이곳은, 코코넛과 망고 농장, 난 재배지와 식물원이 있는 곳으로 약 202만평 규모에 오락과 휴양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닭싸움, 투검, 매일 민속 공연과 코끼리 쇼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성공적인 테마파크로 꼽히는 농녹빌리지는 식물과 동물의 조화를 이루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유 농장이다. 이 농장은 처음에 현 소유자인 캄퐁 탄사차(Kampon Tansacha)의 늙은 노모의 관심에서부터 비롯되어 현재는 20년 동안 개발되어 150에이커에 이르는 정원에 1,000종 이상의 수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150종에 이르는 소철과 수백 종의 선인장, 500여 종류의 난초, 2백여 종의 고사리들 등이 잘 수집 보존되어 있다.

또한 테마파크를 경영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서 자칫 평범한 식물원이기 쉬운 이 농장에 각종 동물쇼와 전통 민속쇼 등을 유치하고 심지어는 동물과 사진을 찍을 때도 돈을 받는 등 아이부터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개발하였고, 관광 요소를 잘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한층 높였다. 자연과 관광의 조화로운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관광산업이 발전되었음을 느꼈다.

■ 숨 막히듯 아름다운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왕궁 (2013. 5. 31.)



에메랄드 사원 (2013. 5. 31.)

왕궁은 총 면적 218,000㎡, 사각의 울타리 둘레가 1,900m에 달하여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방콕이 수도가 된 해인 1782년에 지어지기 시작했으며, 왕족의 주거를 위한 궁전, 왕과 대신들의 업무 집행을 위한 건물, 왕실 전용 에메랄드 사원, 옥좌가 안치된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왕궁에 입장을 하려면 반바지, 미니스커트, 민소매 옷은 입장금지라고 한다. 다만 일정 금액을 맡기면 왕궁 입구에 긴치마와 바지 등을 두고 빌려주며, 다시 갖다 주면 돈을 돌려 준다고 한다.

왕궁 안에 있는 사원이 왓프라깨오(에메랄드) 사원이다. 왓프라깨오는 짙은 남색과 오렌지색의 3층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벽면은 굉장히 화려한 자개 모자이크로 되어있었다. 또한 각각의 건물들이 다른 색으로, 다른 양식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묘하게 어울리는 것 같았고, 아름다웠다.

1782년에 건축된 왓 프라깨오(Wat Phra Kaeo)에는 15세기 라오스에서 만들어진 불상을 18세기 말에 이곳으로 옮겨온, 태국인들이 국보 1호로 꼽는 75cm 높이의 신비스러운 에메랄드 불상이 있다. 원래 이 불상은 라오스에서 가져와, 새벽사원에 모셔졌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태국인들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에메랄드 불상은 계절에 바뀔 때마다 태국의 국왕이 직접 불상의 옷을 갈아입히는 의식을 거행한다.

태국의 경우 관광회사 인.허가 시 관광청에서 파견한 자국민 고용과 관광일정 편성 시 자국 내 상점방문을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정책은 내국인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외국인 가이드에 의해 자국의 역사, 문화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외국 관광객에게 태국문화의 우수성을 올바르게 알리고 체험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물의 나라 태국 방콕 수상시장



유람선에서 (2013. 5. 31.)



수상가옥 (2013. 5. 31.)



물건파는 보트 (2013. 5. 31.)



짜오프리아강에서 본 새벽사원 (2013. 5. 31.)

새벽사원을 따라 황토빛 강 곳곳에 나무로 지어진 주택들과 배를 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방콕의 명소중 하나인 수상시장이다. 이곳 수상시장은 물과 함께 살아가는 태국인들의 생활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며, 싱싱한 과일과 수공예품들을 즉석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시장이기도하다.

수상 시장 중 가장 활발하고 크다고 할 수 있는 수상시장은 담넌 싸두악 수상시장(Damnoen Saduak Floating Market)이다.

태국은 강이 많은 나라다. 하지만 지금은 복개한 곳이 많아 남은 게 별로 없다. 실제로 차가 다니는 곳 밑엔 여지없이 강이 흐르는 곳이 많을 정도라고 한다.

강 주위에선 수상가옥이 자주 눈에 띈다. 수상가옥은 겉보기엔 판잣집 같지만 우리로 치면 한옥 같은 수준이다.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목재로 지었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것이어서 태국인이 느끼는 자부심도 각별하다.

이곳에서 강은 생활이다. 수상슈퍼에 쓰레기 배까지 없는 게 없다.

특히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전통을 더욱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강 길이는 135Km에 이르지만 건널 수 있는 다리는 고작 8개다. 아직도 배로 강을 건너는 풍경이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1. 방문후기

구미시의회 제6대 의회가 3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그간의 의정활동과 남은기간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통해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캄보디아, 태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4박 6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운영되어 심도 있는 연수는 못되었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수 첫날 인천공항에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탑승하여 5시간여 비행 끝에 어두워서야 씨엠립 공항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 말자 열대 기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습도와 더위가 우리를 맞이하였다.

캄보디아 도착 다음 날 우리는 씨엠립 주청사를 거쳐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앙코르 왓을 비롯한 주변 유적지를 탐방하였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앙코르 왓 유적지 탐방은 수많은 사원과 왕국들로 무척 웅대하고 신비로움을 전해 주었으며,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이라 불릴만 하였다. 유적지 매표소 입구에는 본인사진을 촬영하여 유적지내에서 항상 목에 걸고 다니도록 하고, 후에 기념으로 소장하게 하는 것은 우리 금오산 등 구미 관광지를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접목시켜 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전으로 인해 많은 유물들이 손상되었고, 가는 곳마다 파손된 건축물 조각들을 곳곳에 쌓아놓고 방치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까웠다.

공식일정 둘째 날은 앙코르 국립박물관을 관람 후 동양최대의 호수 톤레삽 호수를 찾았다. 톤레삽 호수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트남 난민이라고 가이드는 말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당시 베트남을 떠나왔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베트남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캄보디아에서도 받아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수상가옥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18,000명의 난민들이 낡은 배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관광객들이 타고 있는 배위로 올라와서 아이들이 구걸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큰 구렁이를

목에 걸고 와서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며 1불을 달라고 때를 쓰거나 애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과거 어려운 시설이 있었던 나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가난한 이웃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세계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톤레삽 호수 방문을 끝으로 우리는 캄보디아 일정을 마치고 태국 타파야로 8시간의 긴 시간동안 버스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동안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산을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온통 평야뿐이었던 것 같다. 이런 비옥한 토양을 가진 나라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나라의 국민성이 그렇다고 한다.

저녁 늦게 캄보디아에서 타파야에 도착하여 늦은 저녁을 먹고, 우리는 내일 일정을 위해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했다. 공식일정 셋째날 우리는 타파야 시내에 있는 레뎀토리스트 센터를 방문하였다. 여기는 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설립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만큼 가난한 나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국가차원만이 아니라 민간인 교류를 통해서도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레뎀토리스트 센터를 뒤로 하고 우리는 농눅빌리지로 향했다. 농눅빌리지는 그 크기가 여의도만하다고 한다. 정원 관리하는 사람만 1,500명 정도 되고 농눅빌리지 안에는 관리인들이 생활하는 집부터 슈퍼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입장료는 1인당 400B로 비싼 편이지만 볼거리가 참 많았던 곳이다.

농눅빌리지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농눅빌리지를 전체를 둘러보는데 만 약3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나절만에 견학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다.

또한 테마파크를 경영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서 자칫 평범한 식물원이기 쉬운 이 농장에 각종 동물쇼와 전통 민속쇼 등을 유치하고 심지어는 동물과 사진을 찍을 때도 돈을 받는 등 아이부터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개발하였고, 관광 요소를 잘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한층 높였다. 자연과 관광의 조화로운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날 일정으로 우리는 왕궁과 태국수상시장을 방문하였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날씨를 우리 연수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인간이 얼마나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인가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태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왕궁이나 사원은 외국인이 가이드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입장할 때에는 민소매, 짧은 반바지, 슬리퍼를 착용하는 입장이 금지된다고 한다. 왕궁에 들어서면 순간 규모적인 면에서 놀랐고, 이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인파에 한 번 더 탄성이 절로 나왔다. 태국의 왕은 신 같은 존재로 부모만큼이나 혹은 부모 이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았다. 태국은 어디를 가나 왕의 사진은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왕궁 안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건물은 붉은 황금빛 둥근 탑이었다. 그곳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그 옆에는 불교성전을 모시고 있는 자개장식이 된 건물도 있고, 수많은 불상을 안치하고 있는 건물, 서거한 왕족들의 유해를 안치하고 있는 건물 등 왕궁 안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었다.

이 밖에도 왕궁 내에는 에메랄드사원도 있었다. 이 사원을 지키는 수많은 수호신들은 하나하나 만들기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 같은데 태국인의 조상들에게 새삼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왕궁을 나와 우리는 마지막 일정으로 방콕 시내를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강을 운행하는 유람선을 탑승하였다. 우리가 본 차오프라야강은 황토색 빛을 띠고 있어 깨끗해 보이지 않았으나, 가이드는 원래 깨끗한 물인데,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하였다. 강위에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배들이 떠 있었다. 방콕시민들은 수상버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방콕시내의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수상버스가 얼마나 유용한 교통수단이 되는지 실감이 갔다. 이번 연수의 마지막을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차오프라야강을 따라 수상가옥, 방콕의 전경, 새벽사원을 보면서 마무리 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뒤쳐져 있는 두 나라지만 역사와 전통 문화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상호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금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4박6일간 함께한 해외연수 기간 중 무더운 날씨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정을 잘 소화해내고 여러 가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와 구미시민께 이번 연수가 우리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 정책제언

가. 새마을 종주도시에 걸맞는 새마을 운동 전파

- 구미시는 새마을운동 종주도시의 자질에 걸맞게 국제새마을운동에도 솔선수범해 중국, 베트남, 콩고, 에티오피아, 네팔, 몽골, 필리핀 등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고 있으며, 잘사는 지구촌 건설의 해법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있음.
- 새마을 종주도시에 걸맞게 새마을운동 보급을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하여 구미시의 위상을 높이고, 잘 사는 지구촌 건설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 검토.

나. 관광지 마다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 양코르 왓 유적지 대표소 입구에서 허가증을 사진으로 찍어 제공함으로써 관광지를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하거나, 특별함 없는 톤레삽 호수를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객을 유치

- 우리시에서도 금오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나, 박정희 대통령 생가, 낙동강 활용 등 구미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방안 검토.

다. 도로 중앙분리대 가로등 설치

- 태국 타파에서는 가로등들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 에너지 절감 및 공간 활용도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기존의 가로등은 설치상의 문제 등으로 중앙설치가 어렵더라도 신설도로에서는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